

전주 천만그루 가든시티 추진동력 장착

시,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국고보조에 자연생태관 녹화사업 선정... 3억원 투입 녹지공간 확보 등 추진

전주시의 생태체험학습공간인 자연생태관이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된다.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은 전주를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이다.

시는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국고보조사업에 '전주자연생태관 녹화사업'이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국고보조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주시를 포함한 3개 사업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11월 까지 국비 등 총 3억원을 투입해 자연생태관 건물 벽면(350㎡)을 담쟁이덩굴 등으로 덮는 벽면녹화를 실시하고, 주차장과 주변 자투리공간을 활

용해 약 250㎡ 규모의 녹지와 쉼터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벽면녹화사업을 통해 건축물이 받는 직사광선과 기온, 강수 등 외부의 직접적인 자극을 식재되는 식물로 인해 완화시켜 건축물 표면 온도 변화를 줄일 예정이다.

벽면녹화사업이 실시된 건물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구조의 일반 건축물에 비해 실온이 약 3℃정도 낮게 나타나 등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는 자연생태관 건축물 주변 도로 포장 구간과 그늘이 부족한 주차장 등을 활용해 꽃과 나무를 식재,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녹색 쉼터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어린이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과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온 전주자연생태관에서 벽면녹화 및 녹지조성사업이 추진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가 이뤄져 천만그루 가

든시티 조성을 위한 녹화사업에 시민들의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천만그루나무심기단 관계자는 "전주는 최근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연생태관에 녹지를 조성하고 삭막한 건축물에 대한 벽면녹화 등을 통해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을 위한 생생한 교육공간으로 만들고, 시민 스스로 기후변화 대응과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지역경제 논하다

전주 풍남로타리클럽

자광 전은수 대표 초청강연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 풍남로타리클럽은 지난 13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9월 정기모임에 전은수 주식회사 자광 대표를 강사로 초청, 강연을 했다.

이날, 전은수 대표는 '전주143의 스트립타워 복합개발'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며 "지난 5월 전주시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고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2019년 착공을 시작, 2023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업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새만금 2030 세계 챔피언대회에 맞춰 준공이 가능하다면 전주의 전부를 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기업정신을 풍남로타리클럽의 지역사회봉사 정신과 부합하도록 전주에서 꼭 실현해 잘 사는 미래, 세계 속의 전북을 만드는 데 일조 하겠다"며 "수 천만 명의 관광객이 전주를 방문하여 전주 골목골목에는 관광객들의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확장될 것이다"고 전북 발전의 미래를 시사했다.

한편, 전주풍남로타리클럽은 매월 정기모임에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행사 초청 강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전은수 대표의 강연에는 전주풍남로타리클럽 황규표 회장을 비롯, 회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송효철 기자

개학기 청소년 보호캠페인

전주시 덕진구청은 개학기를 맞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센터, 초·중·고등학교 등 민간, 행정, 학교가 합동으로 지난 13일 전북중학교 정문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이들 기관에서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해 개학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인한 일탈과 비행에 예방하고자 안내문과 홍보물(불편, 자, 포스트잇 등)을 하고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지역에는 혁신도시 상가 일대의 마트, 편의점, 주류판매업소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 및 청소년출입·이용금지업소', '19세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등을 배포, 부착하는 등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도 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하룻길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청소년보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독서대전 성황리 개최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책과 독서, 출판문화 축제인 '2018 전주독서대전'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내일을 잡아라... 빅데이터 예측'

전주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실시... 활용 사례 강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주시가 정보화시대의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찾아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빅데이터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미래변화에 대비해 직원들이 빅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교육은 빅데이터 전문가인 황명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강사로 초청, △빅데이터의 역사 △4차 산업혁명의 정의 및 핵심기술

△다양한 인공지능 사례 등에 대해 강연했다.

황 강사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필요성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빅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정책 결정과 공감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향상시켜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구현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용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한옥마을 여행, 어떠셨나요?'

시, 포스트잇 활용 열린소통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해 포스트잇을 활용한 열린 소통에 나섰다.

시는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관광경제를 키우는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전 광장 등에 여행객 소통판을 설치하고 여행객들의 느낌과 좋았던 점, 개선점, 기타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시가 이처럼 여행객과의 소통에 나선 것은 폭염이 끝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여행객들이 급증한 가운데, 전주한옥마을이 지닌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 소통과정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이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여행객의 개선점을 파악해 정비해나감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전주한옥마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외국 여행객들과도 꾸준한 소통과정을 통해 글로벌 여행지로 우뚝 서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한옥마을 여행객 소통판에는 현재까지 약 10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여행객들은 전주한옥마을에 대해 △한복을 입고 사진 찍을 곳이 많아서



전주시는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관광경제를 키우는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전 광장 등에 여행객 소통판을 설치하고 여행객들의 느낌과 좋았던 점, 개선점, 기타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좋다 △주말에 다양한 문화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색적인 먹거리와 멋진 풍경에 만족한다 △다시 방문하고 싶다 등 긍정적인 의견을 포스트잇에 적어 넣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전통기통 행으로 인해 불편하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상업화로 인한 전통성의 부재로 다소 아쉽다 등의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황관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여행

객과의 소통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이 경유하는 여행지가 아닌 머물고 싶은 여행지가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만 30만명이 다녀가는 등 연간 1100만명 이상이 찾으면서 사계절 내내 여행객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서 손꼽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북한에 소개하고 싶은 명소 1위로 전주한옥마을을 손꼽기도 했다.

/송효철 기자

ICT/SW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공학 활용 교육

전주시-전주정보문화진흥원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 정보통신기술기업과 소프트웨어개발기업들이 좋은 품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나섰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4일 전북지역 ICT/SW기업 관계자와 관련학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SW개발 품질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향상, 고 품질 SW개발을 돕기 위한 코드리뷰(Code Review) 품질기술교육을 했다.

코드리뷰(Code Review)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고, 다른 개발자가 이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드리뷰와 소프트웨어 공학 활용 실무'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착수 전 사용자 요구사항수집에 대한 내용과 코드리뷰의 이해와 활용하는 방법의 전반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개발자들에게는 △개발 단계

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어째서 가장 먼저 명확히 확립되어야 하는지 △고객의 요구사항이 빈번히 변화하는 경우의 대처방안 △개발과 코드리뷰의 관계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프로젝트 팀 내부의 규칙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 SW기업 관계자는 "개발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고객 요구사항이 수시로 변하는데 일일이 대응하다보면 개발 진행이 더디어 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요구사항 변동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코드리뷰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효율적으로 코드를 재사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농산물 절도 피의자 검거... 수확철 절도 주의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절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농산물 수확기를 맞이하여 길가에 또는 담벽 등에 농작물을 말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노리는 절도범 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덕진경찰서(강령1팀 윤석주 경위)는 지난 4~5일 사이 참깨를 수확하여 건조하기 위해 집 앞 담벽에 쌓아 둔 시가 약 25만원 상당의 6류참깨를 몰래 훔쳐 간 절도 피의자 A 씨(56세, 여)를 검거하여 형사입건 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수확하여 건조하기 위해 담벽에 쌓아 둔 참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2회에 걸쳐 3류참깨 6류참깨를 가져가 시가 약 25만원 상당을 절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됐다.

/송효철 기자

"너무 화가나서" ... 베트남 아내

흥기로 찌른 조현병 남편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베트남 아내를 흥기로 찢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4시40분 경 완주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내 B(28)씨를 폭행하고 흥기로 찢어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이웃 집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두자 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4시간 만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10년 전 베트남 국적인 아내와 결혼한 A씨는 평소 아내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죽이고 나도 죽여려는 생각이 집사람을 찢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